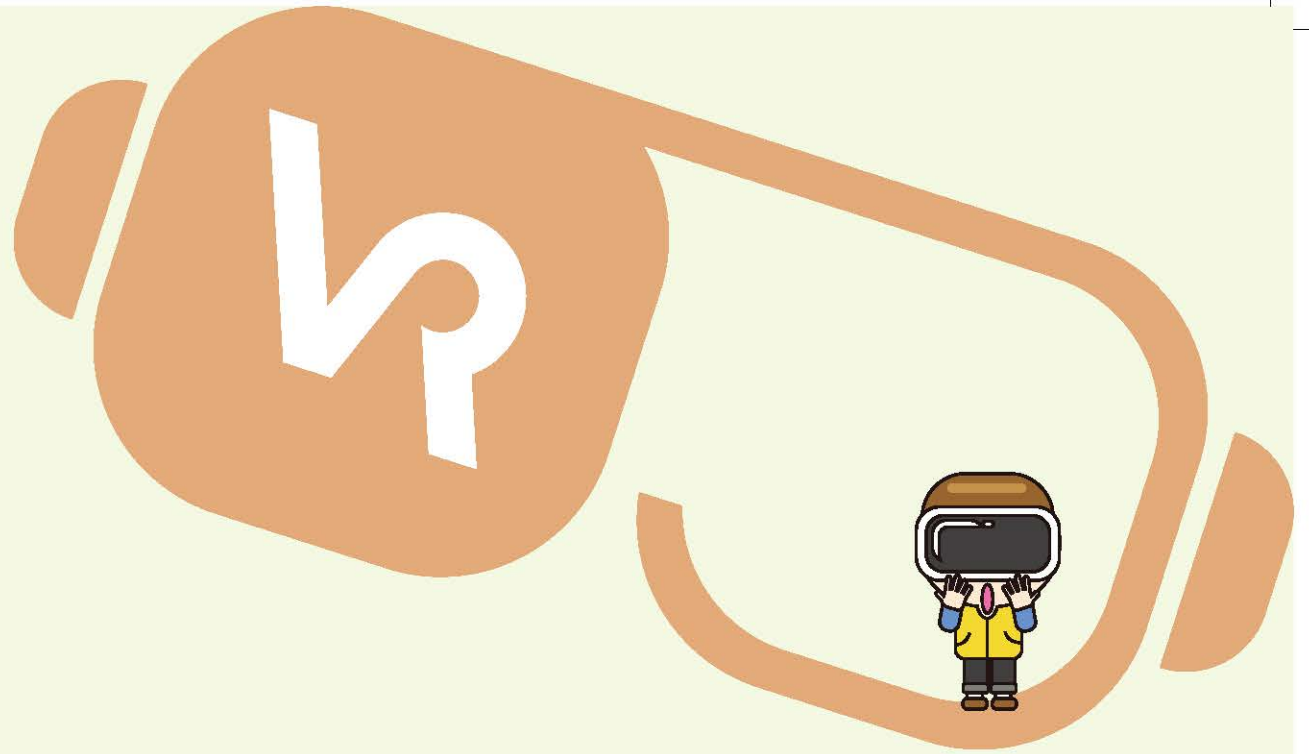


W





과거(過去)로 가서 과거(科學)보자!!
찾아가는 문화재VR (가상현실)



VR

CONTENTS

로 만나는 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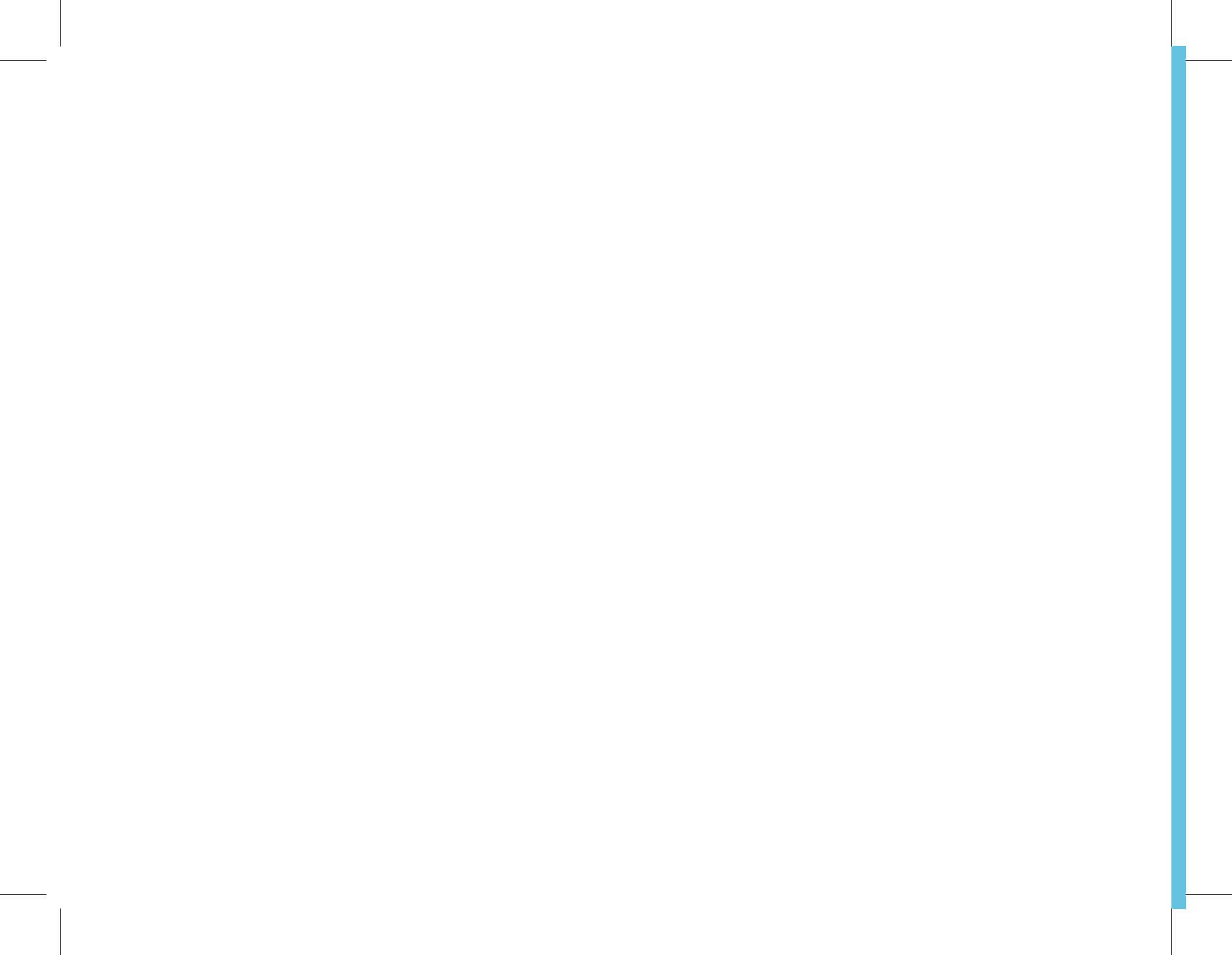
- 07 곡성향교
향교의 역사
향교 둘러보기
- 21 덕양서원
덕양서원의 역사
덕양서원 둘러보기
- 33 태안사
태안사의 역사
태안사 둘러보기

- 49 도림사
도림사의 역사
도림사 둘러보기

- 59 곡성성당
곡성성당의 역사
곡성성당 둘러보기

- 71 구 곡성역
(섬진강기차마을)
곡성역의 역사
곡성역 둘러보기







곡성향교는 조선 선조 3년(1570)에 지었다고 전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중종(재위 1506~ 1544) 이전에 세운 것으로도 보인다.



향교의 역사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heritage.go.kr.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문화유산 검색' (Cultural Heritage Search), '궁궐·종묘' (Palaces and Ancestral Temples), '조선왕릉' (Joseon Royal Tombs), '기록유산' (Archival Heritage), '유네스코 등재유산' (UNESCO World Heritage), and '3D 문화유산' (3D Cultural Heritage). The search results page displays the following information:

문화유산 검색

문화재검색

- 문화재 검색
- 문화재 종목별 검색
- 우리지역 문화재
- 유형분류
- 문화재 안내판 검색

기록유산 원문 +

박물관 소장품

문화재 정책 Q&A +

용어사전

문화재 검색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호
곡성향교 (谷城鄕校)

곡성향교(명륜당)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향교
수량/면적	일곽
지정(등록)일	1984.02.29
소재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0번지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곡성향교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곡성향교는 조선 선조 3년(1570)에 지었다고 전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중종(재위1506~1544) 이전에 세운 것으로도 보인다.

건물 배치는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동재·서재가 있고, 뒤쪽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있어 전학후묘의 형태로 되어 있다.

대성전은 앞면 5칸·옆면 3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새 부리 모양으로 짜맞춘 익공 양식이다.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명륜당은 앞면 3칸·옆면 3칸 규모에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동재와 서재는 각각 앞면 3칸·옆면 2칸 크기를 갖추고 있다. 명륜당은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강당이고, 동재·서재는 기숙사이다. 이외의 건물로는 내삼문·전사청·교직사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향교
둘러보기

곡성읍 성출봉 기슭의 교촌마을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곡성향교입니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의 중등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이곳 곡성향교는 1570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중종(재위1506~1544) 이전에 세운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곡성향교 입구에는 붉은색 두 개의 기둥으로 문짝을 달지 않은 홍살문이 서 있습니다. 서원이나 향교를 비롯해 능 앞에 설치된 홍살문을 볼 수 있는데요. 홍살문은 일주문과 다르게 지붕이 없으며 악귀를 물리치고 집안의 안녕과 무병을 기원한다는 의미의 붉은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하마비가 세워져있네요.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뜻인데요. 청정하고 신령스러운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로가 세 개인 삼문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내삼문이고 지금 보시는 문은 외삼문입니다.



성인문(成仁門)이라고 해서 중앙은 신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신문(神門)과 양쪽 협문 형태로 세 개의 문 중에서 '동입서출'이라하여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으로, 나올 때는 왼쪽 문으로 나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강당, 명륜당입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2층 누각으로 2층은 장마루로 된 대청인데요. 명륜(明倫)이란 '인간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뜻'으로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함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라는 맹자의 등문공편(滕文公篇)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명륜당의 양편인 동서(東西)로 두 재(齋)가 있는데, 동재(東齋)와 서재로 불리며 유생들이 거처했던 공간으로 오늘날의 기숙사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대성전으로 들어가는 내삼문입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대성전이 있습니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포함한 성현들과 설총, 최치원, 정몽주, 이황 등 우리나라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있습니다. 명륜당은 공부를 하는 곳이고, 대성전은 성현의 위패를 모신 곳이니 명륜당보다 더 엄숙해야겠지요.









덕양서원과 용산재는 고려의 개국 공신 신승겸(?~927) 탄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군의 유적이다.



덕양서원의
역사

heritage.go.kr

국립민속박물관 | 문화유산 검색 | 궁궐·종묘 | 조선왕릉 | 기록유산 | 유네스코 등재유산 | 3D 문화유산

문화유산 검색

문화재 검색

문화재검색

- 문화재 검색
- 문화재 종속별 검색
- 우리지역 문화재
- 유형분류
- 문화재 안내판 검색

기록유산 원문 +

박물관 소장품


문화재 정책 Q&A +

용어사전

문화유산 검색 > 문화재검색 > 문화재 검색

문화재 검색

전라남도 기념물 제56호
용산재및덕양사 (龍山齋및德陽祠)



분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 인물기념 / 사우
수량/면적	일원
지정(등록)일	1981.10.20
소재지	전남 곡성군 오곡면 덕양서원길 42, 목사동면 구룡리 180 (덕산리)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평산신씨종중

도움말

스토리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문화재정보를 입력·수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지자체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문의: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문화과 061-360-8349



고려의 개국 공신 신숭겸(?~927) 탄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군의 유적이다.

신숭겸은 왕건을 도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워 개국 일등공신이 되었다. 고려 태조가 즉위한 몇 년 뒤 후백제의 견훤은 신라를 공격하였다. 이에 크게 분개한 태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으나 후백제군에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었다. 이 때 신숭겸이 태조를 구하고 후백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덕양서원
둘러보기

향교와 함께 조선시대 또 다른 교육기관으로 서원이 있습니다.
향교는 오늘날의 국공립학교와 같은 역할이었고 서원은 개인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사립학교라 이해하면 더 빠를 것 같네요.



어느 지방이든 향교와 서원의 건물구조는 비슷합니다. 연서재와 신덕재는 각각 동재와 서재로서 숙소 겸 학문의 강론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강당은 서원의 여러 행사나 유림의 회합장소로 사용합니다.



전사청은 책이나 제수용품 등을 보관하는 곳이고 고직사는 관리인이 주거하는 공간입니다.



향교의 대성전처럼 서원에도 성현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덕양서원에는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 장군의 위패와 영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고려 개국공신 장절공 (開國壯節公)
신숭겸 (申崇謙) 장군

덕양사 (德陽祠)

신숭겸은 왕건을 도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워 개국 일등공신이 되었는데요. 그 업적을 높이 사 1695년, 숙종임금으로부터 ‘德陽(덕양)’이라는 사액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곳은 덕양서원이라 불립니다.



조선시대 왕이 사당이나 서원 등에 이름을 지어내리는 걸 사액이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퇴계 이황을 모신 서원도 1575년 선조 임금으로부터 '도산(陶山)'이라는 사액을 받았고 도산서원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선현배양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오던 향교와 서원.



조선시대 학문을 배우던 교육기관이 지금의 학교와 많이 달라보이긴 하지만 그 가르침과 배움의 열정만큼은 오늘날의 학교와 같을 것입니다.





태안사에는 해철선사의 부도인 적인선사조륜청정탑(보물 제273호), 윤다의 부도인 광자대사탑(보물 제274호), 광자대사비(보물 제275호), 승무를 출 때 사용하던 태안사대바라(보물 제956호), 태안사등중(보물 1349호), 태안사일주문(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 태안사삼층석탑(문화재자료 제170호) 등이 있다.



태안사의
역사

heritage.go.kr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문화유산포털 | 문화유산 검색

문화유산 검색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3D 문화유산

문화유산 검색

문화재검색

- 문화재 검색
- 문화재 종목별 검색
- 우리지역 문화재
- 유형분류
- 문화재 안내판 검색

기록유산 원문 +

박물관 소장품

문화재 정책 Q&A +

용어사전

문화재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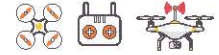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호
태안사 (泰安寺)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사찰
수량/면적	일원
지정(등록)일	1984.02.29
소재지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원달리)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태안사

QR 스토리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문화재정보를 입력·수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지자체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문의 :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문화과 061-360-8349



태안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원년(742)에 이름모를 스님 세 분이 세웠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광자대사가 크게 늘려 지었는데 이 때 절의 규모는 총 40여 동에 110칸이었고, 법당에는 높이 1.4m되는 약사여래철불좌상을 모셨던 듯하다. 고려 고종 10년(1223)에는 당시 집권자인 최우가 고쳐 지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숙종 10년(1684)에 주지 각현이 창고를 새로 지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초에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이 이곳에 머물렀던 인연이 있는 곳이다. 한국전쟁때 많은 피해를 입어서 지금 있는 건물은 대부분이 복원된 것이다.

경 내에는 혜철선사의 부도인 적인선사조륜청정탑(보물 제273호), 윤다의 부도인 광자대사탑(보물 제274호), 광자대사비(보물 제275호), 승무를 출 때 사용하던 태안사대바라(보물 제956호), 태안사동종(보물 1349호), 태안사일주문(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 태안사삼층석탑(문화재자료 제170호) 등이 있다.





태안사
둘러보기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동리산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3명의 신승이 창건하고
혜철대사가 개창한 천년고찰 태안사를 향해 날아보겠습니다.



태안사 앞에는 전나무와 편백나무가 우거져 있어 상쾌한 나무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1.8km의 숲길을 지나 마음을 씻으라는 뜻의 정심교를 건넌다. 이 다리에는 십이지신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더럽혀진 마음을 각자 자신의 신상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더럽혀진 마음을 두고 왔으니 이제 지혜의 다리 반야교를 건너겠습니다.
고즈넉한 산사 태안사로 향하기 위해 건너는 길...



이번에는 해탈교입니다.
도를 이루기 전엔 속세로 돌아가지 말라는 다리입니다.



능파각(凌波閣)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
 건물형식으로 지어진 다리.
 계곡의 물과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미인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능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다리를 건너면
 부처님의 세계로 진입함을 뜻한다.

태안사에 이르는 마지막길은 능파각입니다. 계곡의 물과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미인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인 능파각은 태안사의 금강문으로 누각을 겸한 일종의 다리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세속에서의 일들을 씻어내는 곳입니다.



속세와 불계의 경계역할을 하는 의식적인 상징물 일주문을 지나면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23호 태안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태안사는 연못이 특이합니다. 작은 섬 위에 우뚝 솟은 석탑은 어느 절에서나 만나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연못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삼층석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은 탑입니다. 통일신라시대 3명의 신승이 창건하고 9산선문 개산조사인 혜철대사가 개창한 태안사는 6·25전쟁 때 대웅전을 비롯한 15채의 건물이 불타버렸으며, 근래에 들어와 재건하였습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을 비롯해 천불보전·만세루(萬歲樓)·해회당(海會堂)·선원(禪院)·능파각(凌波閣)·일주문 등이 있는데 이 중 해회당은 네모꼴로 이어진 큰 건물이고, 선원은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선방입니다.



중요문화재로는 혜철대사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보물 제273호의 적인선사탑, 태안사의 3대 조사인 광자대사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보물 제274호의 광자대사탑, 보물 제275호인 광자대사탑비, 보물 제956호인 대바라, 보물 제1349호 태안사 동종 등의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중 바라는 승무를 출 때 사용한 것으로, 조선 태종 때 효령대군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바라입니다.









도림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한다.
통일신라 헌강왕 2년(876) 도선국사가 고쳐 세웠는데 이 때 도인들이 숲같이
모여들어 절 이름을 도림사(道林寺)라 하였다고 한다.



도림사의
역사

heritage.go.kr

문화유산 검색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3D 문화유산

문화유산 검색

문화재 검색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2호 도림사 (道林寺) |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 검색

문화유산 검색

- 문화재 검색
- 문화재 종목별 검색
- 우리지역 문화재
- 유형분류
- 문화재 안내판 검색

기록유산 원문 +

박물관 소장품

문화재 정책 Q&A +

용어사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2호
도림사 (道林寺)

도림사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사찰
수량/면적	일원
지정(등록)일	1984.02.29
소재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월봉리)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도림사

QR 코드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문화재정보를 입력·수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지자체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문의 :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문화과 061-360-8349



도림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한다. 통일신라 헌강왕 2년(876) 도선국사가 고쳐 세웠는데 이 때 도인들이 숲같이 모여들어 절 이름을 도림사(道林寺)라 하였다고 한다.

현재 절 안에는 작은 규모의 법당인 보광전을 비롯하여 응진당, 지장전, 약사전, 칠성각, 요사채 등이 있다. 보광전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에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인 맞배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으로 꾸몄다.

이 절에는 조선 숙종 9년(1683)에 제작된 도림사 괘불탱(보물 제1341호)과 1730년 철매(哲梅)의 증명 아래 수화원(首書員) 채인(彩仁), 진행(眞行), 즉심(卽心), 각천(覺天), 책활(策活) 등이 제작한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보물 제1934호) 등을 보관하고 있다.





도림사
둘러보기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동악산(動樂山)에 있는 도림사는 신라 무열왕 7년 원효대사가 창건 하였다고 하는데, 통일신라 헌강왕 2년에 도선국사가 고쳐 세워 이때 도인들이 숲같이 모여들어 절 이름을 도림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여느 사찰처럼 중심건물엔 대웅전과 같은 성격의 전각인 보광전(普光殿)이 있고 나한전(羅漢殿)·명부전(冥府殿)·약사전(藥師殿)·응진당(應眞堂)·궁현당(窮玄堂)·칠성각·요사채 등이 있습니다.



도림사에는 보물 제1341호로 지정된 도림사괘불탱이 있는데 보광전 불상 뒤편에 봉안해 두었다가 행사가 있을 때 절 마당에 걸어두고 법회를 엽니다.



노송과 폭포가 어우러진 도림사 앞 계곡에는 반석이 좋아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입니다. 도림사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2호 그리고 도림사 계곡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10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해박해후 130년이 지난 1957년 천주교 광주교구장 하롤드헨리 주교는 선조 신앙인들의 터전인 박해의 진원지 이곳 곡성에 분당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허미카 엘 신부를 파견하여 박해당시 감옥이었던 자리에 제대를 봉헌하고 1958년 10월 6일 마침내 곡성성당을 설립하였다.




곡성성당의
역사


곡성성당 : 네이버 통합검색

정해박해진원지 옥터성지 · 성당소개 · 성당안내 · 성당소식 · 나눔의방


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정해박해진원지 옥터성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Shrine Guide
옥터성지 안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도록
안내도를 준비했습니다.



Main parish History
본당 역사
역사깊은 곡성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당의 역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Photo Album
사진 앨범
아이심지가의 길 / 옥사특원
곡성성당의 사진앨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Catholic Church
성당소개
찬미예수님!
정해박해 진원지 옥터성지 전주교 광주대학교 곡성성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보성인 >
주임신부님 인사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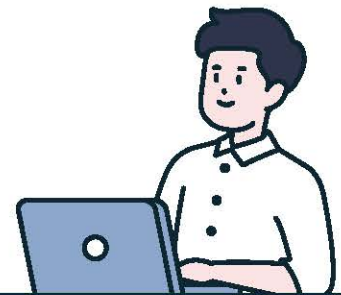
주 성 호 레오
신 부 님



정해박해(丁亥迫害) 진원지

“정해박해(丁亥迫害)는 1827년 정해년 신년이 지나갈 무렵, 전라도 곡성현의 옹기 교우촌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곡성현감의 탄압과 억압으로 시작되었다. 곡성현감의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에 이어서 빠르게 전주의 전라도와 상주의 경상도를 중심으로 충청도와 한양까지 확산된 박해로 현재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승법리 덕실마을이 진원지이다.

출처: 정해박해와 곡성 180p, 조준원·여영숙 공저, 한국문화원연합회 학술총서, 2020년”





곡성성당
둘러보기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의 곡성성당입니다.
곡성성당은 정해박해의 진원지인 옥터성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곡성지역에 복음이 전래된 시기는 1815년 을해년, 조선 조정에서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던 해에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의 신자들이 을해박해를 피해 곡성 지역으로 피신해 오면서 이곳에 천주교가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몰래 이어가면서 생계수단으로 용기를 구워 팔며 신분을 숨기며 살고 있었는데요.



전라감사 이광문의 기록에 의하면 1827년 2월 곡성현 덕실마을에 사는 차주원이 같은 마을사람들인 천주교도들을 곡성현감에게 고발하면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모진 고문이 행해진
곡성현 객사 감옥

이를 계기로 천주교인에 대한 조선 조정의 박해가 시작되어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지역의 천주교인들이 조선 조정의 모진 문초와 고통속에서 천주를 향한 믿음과 복음으로 지나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인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재건과 성직자 영입운동을 꾸준히 전개했으며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1957년, 천주교 광주교구장인 하롤드 헨리주교는 정해박해의 진원지인 곡성에 본당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1827년 정해박해 당시 임시감옥이었던 곡성객사 자리에 제대를 봉헌하고 1958년 10월 6일 마침내 곡성성당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 곡성역은 전라선로의 역사로 1933년에 건립되었으며 등록된 간이역중 규모가 큰편에 속하며, 1933년 10월 15일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하였다.



구 곡성역의
역사


heritage.go.kr

문화유산 검색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3D 문화유산

문화유산 검색

문화재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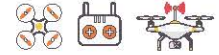
국가등록문화재 제122호
구 곡성역사 (舊 谷城驛舍)



전경 (진입쪽)

분류	등록문화재 / 기타 / 공공용시설
수량/면적	2동, 1층, 건축면적 역사(216.19㎡), 창고(189.50㎡)
지정(등록)일	2004.12.31
소재지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오지리)
시대	1933
소유자(소유단체)	곡성군
관리자(관리단체)	

문화재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상세문의



구 곡성역은 2동, 1층 규모로 역사 건축면적 216.19㎡, 창고 건축면적 189.50㎡이다.

구 곡성역은 전라선로의 역사로 1933년에 건립되었으며 등록된 간이역중 규모가 큰편에 속하며, 1933년 10월 15일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하였다. 1999년 전라선 복선화로 곡성역이 신축이전하면서 폐역되었다. 지붕형태는 박공이 양쪽에 설치되었으며, 전면은 입구에 배면는 사무실쪽에 배치되어 있다. 구조는 목조에 맞배지붕으로 2001년 등록전 보수시 지붕재료와 벽체 일부가 변형되었다. 내부에는 난방시설이 대합실과 사무실 사이에 위치하며 굴뚝이 지붕위에 조적되어 있다.

역사 및 주변부지를 곡성군에서 매입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레일바이클등 폐역된 간이역 중 가장 모범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 곡성역
둘러보기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 자리한 섬진강 기차마을...
그 옛날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며 달리던 증기기관차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1930년대 전형적인 철도역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재 제122호 구) 곡성역! 일제강점기의 전형적인 지방 역사 건물로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간이역중 규모가 큰편에 속하며 1933년 10월 15일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하였습니다.



이곳은 1999년 전라선 복선화로 곡성역이 신축이전하면서 조성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증기소리가 둔탁하지만 촌스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곳.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체험, 음악분수, 엔터테인먼트 놀이공간까지 옛 추억과 테마가 있는 새로움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입니다.

1960년대를 고스란히 옮겨 놓은 것 같은 플랫폼으로 연기를 뿜으며 기차가 들어오면 내리는 승객들과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소란스러움이 옛 기차역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1960년대 거리모습 재현

옛 곡성역 철도 부지에 실제로 운영했던 증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 그리고 객차들이 세워져 있어 영화와 드라마 촬영장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기차길을 직접 달려보고 싶다면 레일바이크를 추천합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내를 순환하는 노선과 침곡역에서 가정역 구간을 운행하는 두 개의 레일바이크 노선으로 기차길 옆 자연풍경을 즐기며 상쾌한 바람을 경험해보세요.



이 외에도 섬진강이 품은 비밀의 정원 장미원에서 1004종의 다양한 장미꽃을 만날 수 있으며 각종 놀이기구, 동물농장, 요술랜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합니다.









사라져 간 것들을 통해 때론 희미해진 옛 기억도 되살아나고 새로운 추억도 생기는 법이지요.
과거로 가는 기차가 있는 곳!!



이곳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2004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구)곡성역 섬진강기차마을입니다.





VR로 만나는 곡성

인쇄 2021년 1월
발행 2021년 3월
발행처 곡성군, 곡성문화원
발행인 고광운
주소 (우)5753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연락처 061-362-0890
홈페이지 <http://www.gs-culture.or.kr>

글 조준원
편집 배숙영
디자인 감디자인 (062-228-2558)

ISBN 979-11-952231-8-3

1. "문화재청 향교서원활용사업" 과거(過去)로 가서 과거(科擧)보자!! 찾아가는 문화재VR(가상현실) 수업 교재입니다.
2. 이 책은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곡성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